전법 일기

전법도 중요하지만 출가 적극 권장해야

몇 년 전 미국에 계시는 한 스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내용인즉, 미국인 한 젊은 남성 재가자가 출가를 원해 한국으로 보내려 하니 화계사 국제선원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스님께서는 그 젊은이가 일요일마다 절에 나와 법회에 참석하고 절에서 울력도 열심히 하던 신도라고 하셨다. 또 화계사에서 머무르며 한국에 적응하고 있으면 얼마 후 입국해 행자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며, 종단 과도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미국인 젊은이의 출가를 위한 절 생활이 시작됐다. 그리고 스님의 부탁대로 그 젊은이가 잘 지내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가끔 물어보며 살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그 젊은이가 한 미국인 여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화계사 국제선원에는 한국에서 어학원 교사로 일하는 젊은 외국인 여성들이 일요 명상 법회에 많이 참석하고 있었기에, 그중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젊은이가 이후 갑자기 말없이 사라져 버렸다. 한국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사라졌다니,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외국어학원 강사로 간 것인가?'라는. 미국에 계신 스님께 바로 연락해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니, 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신심이 깊은 청년이라고 안타까워하셨다. 그 뒤에도 스님께서는 또 다른 미국인 젊은이를 출가시키기도 하셨다.

며칠 전에는 캐나다에서 온 젊은 남성이 사찰 안내소로 들어와 출가하고 싶다며 어떤 분과 상담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기에, 나는 곧바로 아는 스님께 연락 드려 출가 희망자가 있는데 받으시겠는지 여쭤보았다. 스님께서는 이분의 나이와 국적 등 몇 가지 신상 정보를 물어보셨다. 잠시 후 스님께서 다른 스님들과 상의하신 뒤, 절로 보내라고 답해 주셨다. 스님들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불제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요즘은 출가 후 생활이 출가 전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다고 느껴, 행자 교육을 받고 바로 절을 떠나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스님 한 분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아져 출가 지원자도 턱없이 줄어들었기에 이 또한 불교가 당면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불자 한 분 한 분의 전법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출가에 뜻이 있는 젊은이가 있다면 적극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숭산 스님 생전에는 화계사에 외국인 행자님들이 있어서 행자 교육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쳐 드리기도 했다. 합격한 행자님이 잿빛 승복으로 환복한 모습을 뵙고 기뻐했던 기억이 나지만, 요즘은 외국인 행자님도 드문 듯하다.

아무튼 그 젊은이가 면담 후 바로 주지 스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디 이분이 부처님의 바른 제자로 중생제도하는 큰스님이 되시기를 일심 발원해 본다.



조진화 국제포교사



송마나의 **시절인연**

존재의 탈선, 열대야

여름 햇빛이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쏟아진다. 태양의 고삐에서 풀려난 빛들은 산과 바다와 사막을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퍼붓는다. 무자비한 여름빛은 사람이 사는 세상쯤은 안중에도 없다. 빌딩의 외벽을 달구고 아스팔트를 녹이며 공원에 놓인 벤치를 염전 바닥처럼 부석거리게 한다.

여름의 열기를 피해 바다를 찾았다. 해변은 사람들로 들끓었고 파도는 출렁이기를 포기한 채 더위에 지친 몸처럼 드러누웠다. 숲도 다르지 않았다. 제철을 맞은 매미들이 악에 받친 듯 울어 대자 바람조차 끼어들지 못하고 나뭇잎 뒤에서 머뭇거렸다.

여름은 아이들의 웃음이 폭죽처럼 터지던 계절이었다. 학생들은 방학에 들떠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볐고, 가족들은 피서 계획을 짜느라 가슴이 부풀었다. 시골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맞으려 이부자리에 풀을 먹이고 모기를 쫓아낼 마른 쑥을 장만하느라 종종거렸다.

그늘 아래 부채를 부치며 아이스크림을 핥던 달콤한 여유, 저녁이면 식구들이 둘러앉아 수박을 자르던 순간, 얼마나 가슴이 설렜던가. 하지만 언제부턴가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이 붉게 익은 수박은 그 설렘마저 앗아 갔다. 정겨웠던 여름 풍경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아련히 피어난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여름의 흰빛은 난폭하게 날뛴다. 급기야 올여름은 40도를 넘어섰다. 짧은 거리를 걸어도 태양 빛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두 눈을 찌른다. 정수리를 꿰뚫듯 자외선이 쏟아져 정신이 아찔해진다.

더구나 여름의 강렬한 열기는 낮을 초토화한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 밤까지 지배하려 든다. 우리는 낮과 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며 하루를 살아간다. 낮에는 노동의 땀방울을 흘리고, 밤에는 그 수고와 피로에서 벗어나 잠을 잔다. 잠은 치열한 삶을 정돈하는 영혼의 숨결이다.

열대야는 보석 같은 잠을 조각내어 어디론가 가져가 버린다. 빼앗아 간 잠에 대한 보상조차 외면한다. 잠은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필수의 선물이다. 우리는 잠이라는 작은 죽음을 지나 새날을 얻는다. 깊이 잠들수록 새날은 더 밝고 활기차다. 그러나 잠들지 못한 사람에게 열대야는 결코 겪고 싶지 않은, 생의 리듬을 깨트리는 존재의 탈선이다.

열대야로 불면을 앓는 사람들은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어디론가 흘러가듯 삶의 에너지를 방전시킨다. 마침내 불면은 우리의 의식을 흐릿하게 하고 정신을 서서히 피폐하게 한다. 나는 찢긴 잠의 틈새에서 몸을 일으켜 멈춰 버린 선풍기의 타이머를 다시 맞추고 찬물을 한 컵 마신다. 흐릿한 깨어 있음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태양은 이미 졌는데, 왜 깊은 밤에도 불길은 꺼지지 않는가. 내 안에서 번뇌의 불꽃이 일렁거려 밤이 식을 줄 모르고 열기를 뿜어내는 것인가. 허공에는 그믐달이 아스라이 떠 있고, 벌레 떼가 붕붕거리며 어둠을 맴돈다. 머지않아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이 찾아오련만 나는 저들처럼 여름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면으로 뒤척이고 있다. 열대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놓아 버리면 잠들 수 있을까.

〈작가〉

기자칼럼

불교, 산사에서 일상으로

8월 7~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올해도 불교의 문턱을 낮추는 시도를 이어갔다. 단청 시연, 사찰음식 체험, 명상 프로그램, 불교 굿즈, 환경 캠페인 등 전시장 곳곳은 전통과 현대가 겹겹이 어우러져 마치 산사를 거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은은한 나무 향, 구수한 사찰음식 냄새, 명상 공간의 고요함이 관람객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마음굴림' 부스에서는 4일간 800여 명이 '근본에 연결하기', '감정 되돌려놓기' 등의 주제를 선택해 호흡과 성찰을 경험했다. 선명상 체험존에서는 소리 명상과 싱잉볼이 깊은 이완과 정화를 이끌었다. 한 참가자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찰음식전에는 범어사, 황련사, 혜원정사, 홍법사 등 지역 대표 사찰들이 참여해 제철 식재료와 수행자의 마음이 깃든 사찰음식 체험과 발우공양 시연 등을 펼쳤다. "먹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메시지는 음식과 마음공부의 관계를 다시금 일깨웠다.

MZ세대들의 발걸음을 붙은 것은 '불교코어(Buddhism-core)' 감성을 담은 굿즈였다. '무소유', '비움', '명상' 등 불교의 철학적 메시지는 마음챙김과 힐링, 자기돌봄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과 맞닿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리보살' 업사이클링 캠페인도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폐자원 재활용과 환경 퀴즈 등에 많은 이들이 호응했고, 불교가 환경과 사회 문제에서도 실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불교박람회는 사찰에 머물던 수행이 거리로, 가정으로, 그리고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수행이 환경·문화·예술·공동체와 결합할 때 불교는 더 넓은 세상과 대화할 수 있다. 체험 속에 오간 미소와 대화는 그 첫걸음이었다.

이제 그 걸음을 일상에서 이어가야 한다. 매일의 삶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불교의 지혜는 살아 숨 쉴 것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